



리아스식 해안의 완도

치유가 시작된다 _____

깊고 푸른 완도의 바다에는 꿀벌처럼 부지런한
어민들이 뿌린 씨앗이 자란다. 에메랄드빛 수면 위에 격자무늬
양식장은 청정한 자연과 생명의 신비로 빛어진 커다란 작품이다.
바다에 뿌린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퍼진다.

- 1 완도타워에서 바라본 풍경, 가까이 주도(무인도)가 보인다
- 2 우리나라 유일의 난대림 수목원, 완도수목원
- 3 산소 음이온이 풍부한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완도는 크고 작은 265개 섬이 군도를 이루고 있다. 해안선은 굴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형성되어 과거부터 전복, 김, 미역, 다시마 등 각종 양식업이 발달했다. 연평균 기온 15.1℃, 평균 최고기온 19.2℃, 평균 최저기온 11.6℃로 일교차가 크지 않으며, '공기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산소 음이온이 풍부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청정한 대기 환경을 자랑한다. 해양·기후 자원뿐만 아니라, 완도의 주산인 상왕산에는 국내 최대 난대림 수목원이 자리해 해양과 산림자원이 어우러진다.

오랜 시간 완도의 바다는 생명의 보고로 존재했다. 그곳에서 생산한 해조류는 대한민국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입맛을 사로잡았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차오르는 완도의 푸른 바다, 그 바다와 어우러진 깊은 숲, 지역민들이 삶을 다해 길러내는 해조류. 지쳐 있던 당신에게, 잔뜩 움츠러든 오늘의 세상을 위해 치유의 힘을 전한다.

완도와 신지면을 잇는 신지대교를 타고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에 닿았다. 나의 마음이 이 해변처럼 넓다면 근심걱정이 없겠다 싶다. 모두가 노심초사하며 안전을 바라는 오늘, 완도의 푸른 바다를 앞에 두고 긴 숨을 들이마신다.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은 세계적으로 친환경 해수욕장에만 주어지는 블루 플래그(Blue Flag) 인증을 획득했다. 블루 플래그는 환경



교육재단(FEE)이 친환경 국제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심사 기준이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다. 안전과 환경, 수질 관리 부문 등 100여 가지 항목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수질 부문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춰, 안전은 국제표준기구(ISO) 기준을 따라 매우 까다롭게 평가된다.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은 산소 음이온이 풍부하고 고운 모래알과 주변의 숲, 탐방로 등을 갖추고 있다. 완도에서는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보길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에서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해변을 거니는 '노르딕 워킹', 척추운동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자이로키네시스'와 치유 음식도 맛볼 수 있다. 해양 치유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공식 홈페이지(www.wando.go.kr/chiu4u)에서 확인할 수 있다.

Travel Talk

완도수목원

완도는 연평균 기온이 14℃ 이상으로 우리나라 유일의 난대림(열대와 온대의 경계에 있는 상림) 수목원을 보유하고 있다. 3,456ha의 난대림을 품고 있는데 이는 전국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그 안에는 770여 종의 난대식물과 872종에 달하는 동물이 서식하며, 질푸르고 거대한 상록활엽수를 사시사철 볼 수 있다.

Flavours of Wando

먹고 추억하라

상화식당



완도항 인근 상화식당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상식한 해산물을 즐긴다. 상화정식, 완도한상, 화정식 등 취향별로 고를 수 있는 정식 메뉴가 다양하다. 각종 해산물에 매운탕까지 제공되는 상화정식 한상과 새콤한 물회를 추가하면 어렸이 먹기에 부족함이 없다.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33
061-554-4484

귀빈식당



전북 최대 생산지, 완도까지 와서 전북을 안 먹고 가면 뭔가 할 일을 안 한 것처럼 개운하지 않다. 완도 여행 시 꼭 들르는 귀빈식당에서 전북족을 맞본다. 양도 푸짐해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함이 없고 각종 무기질이 풍부한 전북 내장까지 담아 영양도 끝내준다.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11번길 11-6
061-555-1545

바다풍경



광어는 완도군을 대표하는 양식 어종으로 식감이 쫄깃하고 지방 함량이 적어 담백한 맛을 자랑한다. 귀한 손님을 모시고 가면 더욱 좋은 바다풍경에서는 자연산 회, 광어회 코스, 전북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사장님의 손맛은 완도에서 명성이 자자하니 믿고 찾아가보시라.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47
061-554-9900

Under the Sea

영양 가득 우리 수산물

영광군

해풍이 만든 맛의 걸작품 '굴비'
굴비 하면 영광, 영광 하면 굴비를 떠올릴 만큼 영광 범성포굴비는 명품 중의 명품으로 통한다. 1년 넘게 보관하여 간수가 빠진 천일염으로 키워져 염장한 조기에 범성포의 해풍이 더해져 만들어지는 굴비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고 피로 해소와 원기 회복에 탁월하며, 아맹증을 예방한다. 말린 굴비를 찢어 고추장에 재어두었다 먹는 고추장 굴비도 영광의 자랑이다.



신안군

눈물이 날 정도로 짜릿한 흑산도 명물 '홍어'
홍어 하면 '뚝' 쓰는 향과 쫄깃한 식감을 꼽는다. 식힌 홍어 한 점을 입에 넣으면 특유의 냄새에 놀라다가도 꼭꼭 씹기를 반복하면 쫄득하고 일싸한 맛에 반한다. 흑산도 해역은 타 지역보다 입에 착 달라붙는 차지고 부드러운 맛이 뛰어나다.



장흥군

입안에서 출렁이는 바다 내음 '전어회'
전남 장흥은 많은 문인을 배출한 문인들의 고향이다. 이곳 전어회는 많은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며, 그 맛 또한 특별하다. 전어는 가을이 제철이다. 비늘이 많이 붙어 있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으며, 배 부분이 은백색을 띠고, 등 부분은 초록색 빛을 띠고 있는 것이 좋다.



고흥군

한 해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양장어 '참장어'
'고흥산 참장어'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장어다. 큼직하고 기름 가득한 참장어는 꾸덕하게 말려 구우면 아주 맛있다. 참장어의 은근한 살 맛은 소금구이로 즐기고, 탕을 끓여 뽕안 국물을 맛보려면 말린 갯장어를 추천한다. 왕년의 '박치기왕' 김일 선수의 단골 음식이었던 참장어는 단백질이 많아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노화방지, 동맥경화증,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여수시

쫄깃한 식감이 일품 '갯장어'
뼈가 억세어 주로 살만 발라 훑로 먹는 갯장어. 여수에서는 사부사부로 맛본다. 갯장어를 흔히 히모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본명이다. 여수에서는 참장어, 개장어, 이장어, 갯붕장어로, 전남 완도에서는 붕장어, 녹장어 등으로 불린다. 야간 낚시에 포획되며 붕장어와 달리 이빨이 매우 날카로워 진짜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어획 시기는 주로 5~11월이다.



고려청자의 고향이 품은 담청색 바다

차향이 월출산을 휘감고, 담청색 바다가 일렁이는 강진에는 그윽한 분위기가 넘친다. 오래전부터 명산으로 불린 월출산은 일교차가 크고 햇빛을 막아주는 안개가 종종 끼어 차 재배지로 유명했다. 강진으로 유배 온 다산 정약옹이 이곳의 차 맛이 좋아 자주 즐겼다고, 월출산 아래로 넓게 펼쳐진 차밭은 5월 초가 되면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채색된다.

마랑항은 사시사철 해산물이 넘쳐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풍요로운 항구다. 낮보다 밤의 정취가 아름다운 이곳에서는 토요일마다 수산시장과 흥겨운 음악회가 열린다.남도 음식의 우수함이야 모두가 아는 이야기. 맛깔나게 차린 한정식 한 상에 남도 식도락 여행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이것이 눈맛, 입맛을 모두 사로잡는 강진으로 떠나야 할 이유다.



수험 안내

강진군수험
061-432-2081~3
활산어(마랑)위판장
061-432-2083



강진만생태공원



강진만생태공원



해태식당



계절마다 다른 별미를 맛볼 수 있는 남도식 한정식집이다. 봄에는 강진 특산물인 대합, 여름에는 민물장어, 가을에는 전어와 보리새우회, 겨울에는 매생이국이 나온다. 재료의 신선함과 본래의 맛을 살리기 위해 양념을 최소화한다는 주인장의 철칙대로 음식이 깔끔하다.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안길 6
☎ 061-434-2486

마량회타운



회 정식을 주문하면 명게, 해삼, 낙지, 가리비, 간장게장 등 다양한 서비스 음식이 나오는데,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싱싱하다. 쫄쫄한 식감의 회도 두말할 것 없이 특미다. 또 하나 잊어서 안 될 메뉴는 각종 과일을 넣어 직접 만든 된장 육수에 싱싱한 횡감을 넣어 만든 된장물회다.

☎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미향로 136
☎ 061-433-7550

강진만갯벌탕



강진군이 지정한 '강진 맛집' 제1호 식당이다. 주인장은 동해화관에서 지금의 '강진만갯벌탕'으로 새 이름을 짓고 찜뚱어 요리를 30년 넘게 선보이고 있다. 구수하고 깔끔한 맛의 찜뚱어탕이 영양까지 높아 보신용으로든 제격이다. 맛있게 매콤한 간자미회무침도 빠질 수 없는 별미다.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성로 16
☎ 061-434-8288



마량미항 찰전어축제

수려한 바다 경관을 바라보며 제철 전어를 맛볼 수 있는 축제가 마량항에서 격년으로 열린다. 전어 시식 행사를 비롯해 대형 전어비빔밥 만들기, 전어 맨손잡기 체험도 마련돼 있다.

☎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미향로 150
☎ 문화관광실 061-430-3352

하저 어촌체험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갯벌과 바다에서 얻은 비지락, 꼬막, 석화(굴) 어패류가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다. 어선 타기, 대나무 낚시 등을 체험할 수 있다.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저두바닷길 19
☎ 하저어촌체험마을 061-432-7967



바닷길 트레킹

마량항을 출발해 해안선을 따라 걷는 코스다. 천년 예술촌이 살아 숨 쉬는 청자박물관을 관람하고 도자기 빚기 체험과 어촌 체험도 할 수 있는 바다와 함께 가는 둘레길이다.

📍코스 1. 바다가 보이는 풍경길
마량항 - 구곡 해변길 - 청자박물관 - 고바우공원 - 종저출렁다리(18.7km, 7시간)
☎ 문화관광과 061-430-3341



영광의 맛을 찾아

‘영광’ 하면 굴비, ‘굴비’ 하면 영광 법성포다. 냉수에 밥을 말아 짭조름한 굴비 한 점 없어 먹으면 없던 입맛도 돌아온다. 살과 알이 꽉 찬 간장게장과 쫄득하고 매콤한 덕지(길이 50cm 이상의 병어)찜은 또 어떤가. 영광은 밥도둑들이 굴비 엮듯이 줄줄이 나온다.

영광은 백제 침류왕 때 불교가 들어온 곳이기도 하다. 인도 명승 마라난타가 법성포로 들어온 후, 불갑면 모악리 산자락에 불갑사를 지은 것이 오늘에 이른다. 법성진 숲쟁이는 조선 중종 때 축조된 법성진성의 연장으로 심은 느티나무 등이 성장해 이뤄진 울창한 숲이다. 국가 지정 명승 ‘한국의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었으며, 매년 국가무형문화재 법성포단오제가 이곳에서 열린다. 솔솔 부는 해풍 맞으며 맛있는 여유를 누는 영광으로 떠나보자.

여행 코스

불갑사



내산서원



법성포



법성진 숲쟁이



Travel Tip

영광노을전시관에는 영광의 노을 풍경과 전 세계 노을 명소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빛의 과학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시 공간과 가상현실(VR) 체험관 전망대도 있다.





모래미해수욕장



영광노을전시관

수협 안내

영광군수협
061-352-8606
수협바다마트
061-356-1314
법성선어위판장
061-356-2304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법성토우



영광굴비, 간장게장 정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돌솥밥에 10가지 밑반찬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정갈하다. 정식을 시키면 나오는 보리굴비는 비린 맛이 전혀 없고 담백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함께 제공되는 조기구이, 간장게장, 조기찌개도 일품이다.

- ☞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로3길 26-9
- ☎ 061-356-8424

밀향기



해물칼국수, 해물낙두전으로 유명하다. 낙지, 새우, 홍합 등 다양한 해물과 채소를 넣고 끓인 해물칼국수는 시원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로 인기가 많다. 엄청난 크기와 바삭함을 자랑하는 해물낙두전도 잊지 말고 맛봐야 할 별미다.

-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함영로 3448
- ☎ 061-353-1155

갈매기식당



단 한 가지 메뉴로 승부를 걸었다. 굴비구이, 보리굴비, 간장게장, 조기매운탕, 떡갈비, 낙지호롱 등 남도를 대표하는 다양한 음식을 한 상에 만날 수 있는 '한상차림'이 유일하다. 메인 요리는 물론이고 밑반찬까지 훌륭한 맛으로 재방문 의사가 확실히 생기는 맛집이다.

- ☞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46
- ☎ 0507-1409-7991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곡우사리 영광굴비축제

법성포는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영광굴비로 유명한 고장으로, 매년 영광굴비축제를 연다. 굴비 엮기 대회, 조기 산산제, 굴비 굽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 ☞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법성포 일대
- ☎ 법성면사무소 061-350-5972

삼미랑 어촌체험

4개 마을이 모여 생긴 삼미랑 권역 내에서는 농촌과 어촌 체험을 모두 할 수 있다. 들녘 걷기, 고추장·약밥·모시떡 만들기, 망둥이 낚시, 조개 캐기 등을 체험해보자.

-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1188
- ☎ 삼미랑어촌체험학습장 061-353-3500



행복한 농어촌체험

산과 바다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칠산바다를 배경으로 서해 낙조와 절경을 자랑하는 백수해안도로가 있는 마을로 모시송편 만들기 체험과 갯벌 체험을 즐길 수 있다.

-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길 124-18
- ☎ 행복한농어촌체험마을 061-353-0045



서해 바다에 뿌려진 은하수

한반도 서남해안에 위치한 신안. 무려 1,004개 이상의 섬으로 이뤄져 '천사(1004)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정확히는 1,025개로, 섬마다 특유한 문화와 문화유산이 있는 섬들의 천국이다. 과거에는 주로 배를 타고 다녔던 섬과 섬 사이에 최근 천사대교 등 연도교가 놓여 이동이 한결 수월해졌다. 목포나 무안에서 신안군청이 있는 압해도로 들어가 천사대교를 건너면 암태도, 팔금도, 안좌도를 만날 수 있다. 그중 안좌도는 요즘 떠오르는 관광지가 됐다. 바로 퍼플교 때문. 안좌도와 반월도, 박지도를 잇는 보라색 해상보행교로, 평생을 박지도에서 보낸 한 할머니의 '걸어서 섬을 건너고 싶다는 소망에서 시작됐다. 섬에 자생하는 보라색 꽃이 많아 다리를 보라색으로 단장했다. 2021년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들었고, 같은 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의 별' 본상을 받았다.



수협 안내

- 신안군수협
061-240-5613
- 흑산직매장
061-246-1999
- 송도위판장
061-275-4856



오도선착장
©신안군청



퍼플교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청해회수산



신안군수협 송공위판장에서 경매되는 싱싱한 수산물로 그날그날 음식을 만든다. 최고를 자랑하는 '신안 빨낙지'를 다양한 요리로 맛볼 수 있다. 대표 메뉴인 물회는 주방장이 직접 만든 육수와 신선한 제철 수산물이 어우러져서 일품이다. 제공되는 해초국수를 비벼 먹는 맛도 압권이다.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849
☎ 061-271-7750

이학식당



짱뚱어는 망둑어과에 속하는 갯벌 물고기로 갯벌의 청정 유기물만 먹고 산다. 이학식당은 증도의 짱뚱어탕 원조 1호 음식점으로 유명하다. 구수하고 얼큰한 짱뚱어탕 외에도 백합탕, 낙지연포탕, 병어조림, 각종 활어회를 맛볼 수 있다.

☎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도중앙길 39
☎ 061-271-7800

안성식당



낙지백합탕, 낙지볶음, 낙지연포탕, 갯벌낙지 등을 맛볼 수 있는 낙지 맛집이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낙지로 만든 낙지연포탕은 꼭 먹어봐야 할 이 집의 별미다. 추어탕과 비슷하지만 국물 맛은 더욱 구수하고 비리지 않은 짱뚱어탕도 많이 찾는 메뉴다.

☎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도중앙길 43
☎ 0507-1438-7998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흑산 홍어축제

매년 5월 초에 열리는 신안의 진정한 맛 축제다. 홍어를 주제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이 있으며 흑산도의 우렁, 전복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산물 판매장도 운영된다.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예리항 일대
☎ 해양수산과 061-240-8411



신안 소금밭 체험

근대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생태천국 태평염전에서는 천일염의 중요성을 알리며 염전 체험, 수차 체험 등의 부대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1648-21
☎ 소금박물관 061-275-0829

섬 병어축제

신안의 청정 바다에서 건져 올려 맛이 좋고 깨끗한 병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섬 병어축제가 6월 중 신안젓갈타운에서 열린다. 다양한 병어 요리가 있는 먹거리 장터도 운영한다.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해제지도로 1283-24
☎ 해양수산과 061-240-8411



낭만 항구 목포

유달산에 탐스럽게 핀 봄꽃이 푸른 바다에게 인사하고, 그 위로 유유히 해상케이블카가 날아다닌다. 남도의 먹거리에 신선한 해산물이 더해져 풍성한 식탁이 차려지는 곳, 목포다. 노령산맥의 큰 줄기가 무안반도 남단에 이르러 마지막 용솨음을 한 유달산은 다도해로 이어지는 서남단의 땅끝에 있다. 노령산맥의 맨 마지막 봉우리인 정상에 올라서면 다도해의 경관이 시원스레 펼쳐져 있고, 이곳에서 바라보는 다도해의 일몰이나 목포항의 야경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진한 여운을 선사한다.

바다와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과 목포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전시물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거리가 많아 신나는 탐험을 즐길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남도의 멋과 낭만이 가득한 항구 목포를 구석구석 누빌 시간이다.



수험 안내

- 목포수험**
061-240-0240~3
- 무안수산물위판장**
061-454-9501
- 동부위판장**
061-240-0355
- 우리바다판매장**
061-242-6820



목포해상케이블카



미락식당



목포시에서 인증한 으뜸맛집이다. 냄비에 무와 감자를 자박하게 깔고 시래기와 갈치를 큼지막히 썰어 올린 갈치조림은 어느 음식과 바꿀 수 없는 맛. 밥도둑 갈치조림 외에도 제철 수산물로 요리한 생선찜, 회, 매운탕 등도 맛이 빼어나다.

☞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231번길 12
☎ 061-272-3828

선경준치횃집



선경준치횃집은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로컬 맛집으로 목포 토박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곳이다. 맛의 비결은 좋은 재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목포수협위판장에서 국내산 생선을 당일 수매해 조리한다. 준치회무침에 비해 먹는 맛은 회와 비빔밥의 맛을 절묘하게 조화시켰다.

☞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57번길 2
☎ 061-242-5653

이모네탕집



소박해 보이는 상차림이지만, 정통 목포의 맛이다. 갈치조림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칼칼한 맛이 제대롭다. 갈치 고유의 맛이 그대로 살아 있다. 얼큰한 우럭탕과 장어탕은 생우럭이나 장어를 통째로 넣고 끓여 식감이 쫄깃하다. 기본 반찬은 과하지 않으나 천생 목포에서만 볼 수 있는 맛이다.

☞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51
☎ 061-242-7004



목포항구축제

목포항구축제는 과거 바다 위에서 열렸던 생선시장인 파시를 통해 풍요로운 목포항을 재현한다. '신명 나는 파시마당'을 포함한 총 70여 개의 행사가 열린다.

☞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203
☎ 관광과 061-270-8431



목포해양유물전시관

1994년에 개관한 우리나라 대표 국립 해양역사 박물관이자 아시아 최대의 수중고고학 전문 박물관이다.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어린이 체험관이 있으며, 매년 2~3회 특별전이 열린다.

☞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36
☎ 목포해양유물전시관 061-270-3001

외달도 갯벌체험

전국 100대 아름다운 섬으로 지정된 외달도에서는 갯벌 생태체험을 할 수 있다. 조개, 고둥은 물론, 다양한 갯벌 생물을 만날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 전라남도 목포시 외달도길 72
☎ 목포종합관광안내소 061-270-8598



풍요로운 보배의 섬

보배로운 섬 진도는 땅과 바다가 내어준 풍요로움 덕분에 인심이 넉넉했다. 산과 들과 바다의 산물을 거둬들일 때면, 구성지고 흥겨운 진도아리랑 한 가락에 허리 한 번 펴고 숨을 골랐다. 진도아리랑은 늘 진도 사람들 곁에 있었다.

명랑해전의 전승지인 울돌목은 '소리를 내어 우는 바다 길목'이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해남과 진도 사이의 바다다. 울돌목 위로 놓인 다리가 진도대교로, 맞은편 망금산 정상에는 진도타워가 우뚝 서 있다. 진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이곳에 오르면 세방낙조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진도대교 야경은 진도의 자랑거리 중 하나다.

사람의 마음을 은은하게 적시는 매력을 가진 진도의 풍경. 남종화처럼 곱게 빛어진 풍경을 보며 풍요로운 마음을 흠뻑 적셔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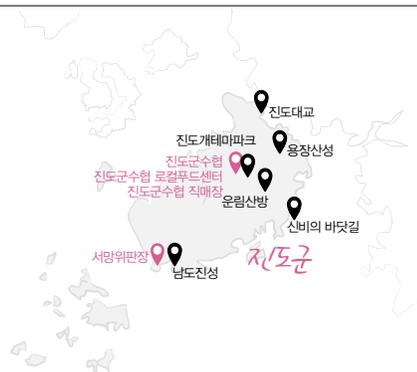
운림산방
©진도군청



신비의 바닷길
©진도군청

수협 안내

- 진도군수협
061-540-5000
- 서망위판장
061-544-2935
- 진도군수협 로컬푸드센터
061-540-1000
- 진도군수협 직매장
061-543-5115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사랑방음식점



간자미무침과 바자락무침을 강력 추천한다. 간자미는 새콤달콤하면서도 오독오독 식감이 있는 게 매력적이다. 바자락무침은 바자락과 마늘즙, 파, 고추 등이 잔뜩 들어가 매콤하면서 식욕을 자극한다. 함께 제공되는 전복도 신선하다.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쌍정2길 22
061-544-4117

신호등회관



진도 앞바다에서 직접 채집하고 가공한 해산물을 사용한다. 꽃게, 성게, 전복, 계절 생선부터 육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취향에 맞게 골라 먹을 수 있다. 간장게장정식, 양념게장, 꽃게살비빔밥, 전복비빔밥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어 식사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66
061-544-4449

꽃피는 전복식당 2호점



싱싱한 진도산 전복과 톳을 넣고 지은 숯밥이 유명하다. 함께 나오는 젓갈과 간장양념 중 각자 취향에 맞게 비벼 먹으면 된다. 전복이 잔뜩 들어간 전복죽도 이 집의 별미다. 그 외에 랍스터 버터구이가 제공되는 회 세트, 고소한 맛이 일품인 전복구이, 신선한 전복회도 맛있다.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로 224
0507-1409-0198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신비의 바닷길 축제

매년 3월 말~4월 초, 고군면 화동리와 의신면 모도 사이 약 2.8km의 바다가 열리는 신비로움을 만나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 수십만 명이 몰려오는 세계적인 축제다.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신비의 바닷길 74
문화관광과 061-540-3408

죽림 개매기체험

조수간만의 차가 큰 바닷가 갯벌 위에 그물을 치고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 떼를 손으로 잡는 체험이다. 보리숭어, 전어 등을 직접 잡아 맛볼 수 있다.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현복동길 16
죽림어촌체험마을 061-544-6645



접도 어촌체험

개매기 체험이 가능하며 장어, 감성돔 등을 잡는 낚시 체험도 할 수 있다. 연륙교로 진도군과 연결되어 있어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황모길 81
접도어촌체험마을 061-544-4450



한반도의 끝이자 시작

가쁘게 달려온 산천이 바다에 달아 숨을 가다듬는 곳, 혹은 산천이 북쪽으로 가는 들머리이기도 한 끝이며 시작인 땅, 전남 해남 땅끝마을. 정식 지명은 해남군 송지면 갈두리다. '땅의 끝'이라는 상징성 덕분에 한 해의 끝자락과 새해의 시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한반도 최남단 해남에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공룡 화석지, 고산 윤선도 유적지, 다도해를 바라보는 두륜산도립공원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대흥사 등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다.

몸과 마음에 심포 하나 그려넣고 싶을 때, 해남을 여행하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건 어떨까.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해남에서다.



수협 안내

해남군수협
 061-534-4151~3
 수산물(남창)직매장
 061-533-1016
 어란물김위판장
 061-535-1070



고천암 철새도래지
 ©해남군청



목포 구등대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

남도식당



남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상차림이다. 해남에서 나오는 해산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아나고(붕장어) 주물럭'을 주문하면, 주문과 함께 수족관에서 살아 있는 아나고를 바로 잡아 요리한다. 활어는 물론 제철 음식까지, 어떤 음식을 선택하든 '남도의 맛'을 즐길 수 있다.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158
☎ 061-537-3355

바다등산



해남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삼치, 감찰맛과 바다 향이 나는 매생이무침, 톳무침, 칠게장 등의 반찬이 최고라 할 만하다. 삼치가 입에서 녹고 김에 양념장을 넣고 싸 먹으면 환상적이다. 살이 딱 찬 게장, 새우장, 해초 등 기본 반찬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코스 요리는 푸짐하고 정갈하다.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길 52
☎ 061-532-3004

사거리공룡식당



직접 만든 계장의 맛이 일품이다. 남도 해남다운 음식 솜씨로 내놓는 푸짐하고 맛있는 밑반찬에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하고 신선한 계장은 누구에게든 추천할 만하다. 생선구이, 가오리찜, 제육, 된장찌개까지 하나도 지나칠 수 없는 상차림이다. 맛도 좋지만, 가격까지 훌륭해 가성비 맛집이다.

☎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공룡박물관길 80
☎ 061-532-2024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



해남미남축제

두륜산도립공원에서 매년 가을 개최하는 음식 축제다. 해남의 대표 농수산물인 고구마, 김치, 김 등을 이용해 만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대흥사 일대
☎ 관광실 530-5158



오산 어촌체험

갯벌이 잘 발달되어 농게, 쫄면어 등 다양한 바다 생물을 만날 수 있다. 갯벌 머드팩, 바지락 캐기, 굴따기 등 바다 체험과 휴양마을로 인기가 높다.

☎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오산길 88
☎ 오산어촌체험마을 070-7759-5047

산소 어촌체험

개막이 체험, 갯벌 체험, 대나무 낚시 체험, 덩장 체험, 무인도 체험, 친환경 김 체험 등을 진행한다. 관광객을 위해 숙박시설 3곳도 운영 중이다.

☎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안산길 135
☎ 산소어촌체험마을 0507-1309-0250



청정 자연이 건네는 위로

빙그레 웃는 남도의 섬. 고운 바다 풍경, 물 빠진 갯벌, 오도카니 떠 있는 작은 섬들. 그윽한 완도의 풍치가 빙그레 웃으며 여행객을 맞는다.

해신 장보고의 기상이 숨 쉬는 섬으로도 유명하다. 청해진 유적지가 있는 장도를 가려면 완도 동쪽의 장좌리 앞바다로 가야 한다. 한때는 하루 두 차례의 썰물 때만 걸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장도 목교가 놓여 있어서 출입이 자유롭다.

완도를 조금 더 멀리 넓게 보기 위해서라면 완도타워를 추천한다. 가슴이 탁 트이는 전망대는 360도 파노라마로 구성돼 한 바퀴 돌면 완도의 풍경을 전부 눈에 담을 수 있다. 맑은 날씨에는 육안으로 제주도도 보인다. 섬을 떠나기 전에 전복 맛을 안 보면 서운하다.

사계절 푸름이 묻어 있는 청정 섬 완도로 떠나자. 망설일 이유가 없다.

여행 코스

완도수목원 → 어촌민속전시관 → 완도타워 → 명사십리해수욕장

Travel Tip 완도타워를 오르는 방법은 두 가지 도보와 모노레일이다.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양옆의 산책로와 다도해 일출 공원의 풍경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

장보고기념관 장도 청해진 유적지



장도 청해진 유적지



장보고기념관

수협 안내

- 완도금일수협
061-554-5441~5
- 수협바다마트
061-554-2586
- 완도금일위판장
061-554-5441
-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061-552-2095



바다 한 상 眞맛집



황제회관



신선하고 푸짐한 전복 물회로 유명한 곳이다. 콩나물무침, 묵은지, 미역, 멸치볶음 등 남해의 향이 물씬 나는 밑반찬으로 허기를 달래면 세숫대야처럼 커다란 그릇에 문어, 해삼, 멍게, 생선회, 날치알 등 해산물이 가득 담긴 물회가 등장한다. 양이 많아도 남길 수가 없다. 너무 맛있기 때문에.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56번길 40-1
☎ 061-554-8581

빙그레식당(본점)



한 상 가득한 기본 반찬을 보면 '아, 맛의 고장 전라도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든다. 부침개, 잡채, 오징어초무침, 묵무침, 깻잎장아찌, 감자볶음 등 밑반찬으로만 한 그릇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생선구이는 그날그날 종류가 달라지는데, 반건 조된 생선을 조리해 겉은 쫄쫄하면서도 속살은 촉촉하다.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565-4
☎ 061-554-1144

명품전복궁



식감이 살아 있는 활전복회, 새콤매콤한 전복물회, 구수한 전복죽, 부드러운 전복장, 바삭한 전복탕수에 전복찜과 전복초무침까지 다양한 전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주인장이 직접 자연환경 그대로 유지하며 가두리 양식장에서 전복을 키워 가성비 좋은 음식을 낸다.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34-1
☎ 061-554-0510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매년 5월 중 개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 문화축제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다를 개척한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국내 최고의 수산물 완도의 위상을 돌아본다.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완도해변공원, 장보고동상, 명사십리해수욕장 일원
☎ 관광과 061-550-5431



완도타워 스카이집라인

완도타워에서 즐기는 집라인은 길이 320m로 다도해 비경을 한눈에 보며 짜릿함을 즐길 수 있다. 하이힐, 슬리퍼를 착용하거나 치마를 입은 경우 탑승이 불가하다.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0
☎ 완도타워스카이 061-555-0902

금일 다시마축제

전국 제일의 다시마 생산지인 완도의 위상을 높이는 축제로 5월 중순 금일해당화해변 일원에서 열린다. 국악놀이 등 개성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구성된다.

☞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월송리 금일해당화해변 일원
☎ 금일읍사무소 550-6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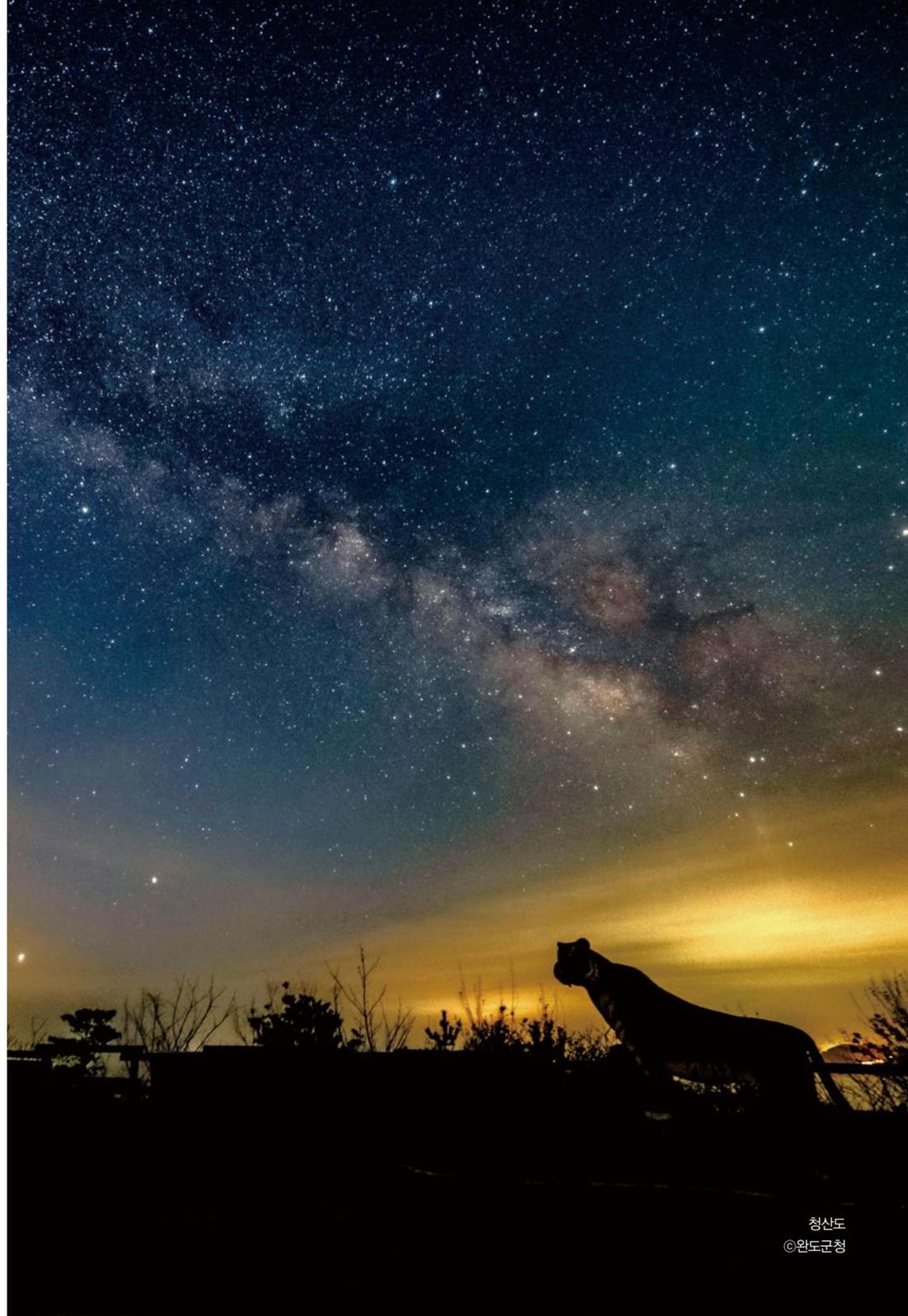
삶의 실타래가 되어주는 섬 여행

느리게 걸어도, 천천히 쉬어도 괜찮다며 지친 마음을 풀어주는 섬이 있다. 완도 청산도, 산과 바다. 하늘이 모두 푸르러서 그럴까. 섬에 흐드러지게 가득 핀 꽃이 유독 눈부시다. 청산도 마을을 잇는 길은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 하여 슬로(slow)길이라 이름을 붙였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2011년 청산도 슬로길을 세계 슬로길 1호로 공식 인증했다. 걷기 여행자에게 필수 방문지가 된 섬은 슬로길 11개 코스를 갖췄다. 영화 <서편제> 촬영지로 유명한 당리 언덕길, 구불구불한 옛 돌담으로 채워진 상서마을이 대표적인 코스다. 조선시대 문인 윤선도는 보길도의 아름다운 풍광에 반해 이곳에서 어부사시사, 오우가 등 조선 가사 문학의 대표작을 탄생시켰다. 소안도에는 일제강점기 독립 투쟁이 치열했던 곳으로 항일운동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수험 안내

완도소안수협
 061-553-7206~7
청산직매장
 061-552-8545
소안수산물위판장
 061-553-7206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청산도방



회와 중화요리를 한 번에 맛보는 곳이다. 다른 중국집과는 달리 전복, 해삼, 낙지, 광어가 들어가는 물회를 맛볼 수 있다. 또 전복회, 전복찜도 즐길 수 있는데 청산도에서 직접 양식한 전복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선함이 다르다.

☎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락길 22-20
☎ 061-552-0031

바위섬횡집



보길도 대표 맛집이다. 완도군은 전국에서 전복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인데 그중에서도 보길도에서 양식하는 전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싱싱한 보길도산 전복회를 비롯해 전복구이, 전복죽 등 다양한 전복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활어회도 꼭 먹어봐야 할 만큼 싱싱하다.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보길동로 2028
☎ 061-555-5613

미로식당



전복뚝배기, 전복해초비빔밥, 전복순두부찌개 등 전복 요리뿐 아니라 갈치조림, 삼겹살, 육개장 등 다양한 메뉴도 맛볼 수 있다. 반찬은 갖김치, 미역줄기, 고사리 등 12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엄마가 해준 집밥이 떠오르는 맛이다. 요리에 등장하는 해산물은 모두 싱싱함이 기본값이다.

☎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청3길 22
☎ 061-552-3055

Editor's Ch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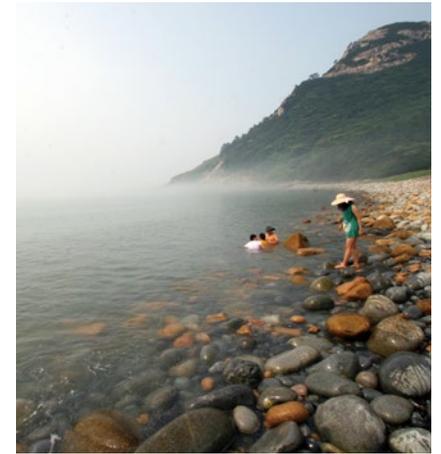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소안도 개매기 체험

바닷가에 그물을 설치해 손으로 직접 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방식으로 송어, 우럭, 망둥이, 바지락, 맛, 게 등 다양한 해산물을 잡을 수 있다.

☎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월항길 32
☎ 개매기마을 061-555-0508



보옥 어촌체험

낭장망으로 멸치, 전어, 갑오징어를 잡는 것으로 유명하다. 멸치잡이, 젓갈 담그기, 제철 수산물 시식 등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이 풍부하다.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보옥길 8
☎ 보옥어촌체험마을 010-5067-6643

도락 어촌체험

청산도 경관이 아름다워 가족 단위 체험객이 많이 찾고 있다. 마을에는 맨손으로 고기 잡는 독살과 하트 모양의 개매기체험장 등이 마련되어 있다.

☎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락길 45-4
☎ 도락어촌체험마을 0507-1318-1998



고즈넉한 정취가 넘치는 문인의 땅

서울 광화문에서 정남향으로 선을 그으면 장흥 정남진에 닿는다. 장흥은 산과 숲, 강과 바다를 고루 안고 있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고장이다.

역불산 아래 빼곡하게 자리한 편백의 터전,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포근하고 아늑하게 여행자를 보듬는다. 숲에 들어서면 편백 특유의 내음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산책하며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한결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순식간에 몸 안 구석구석 맑고 청량한 기운이 가득 차 오른다. 어디를 가든 막 피어난 연둣빛과 완연한 청록이 어우러져 푸르다. 예로부터 장흥을 문림의향(文林義鄉)이라 불렀다. 명망 있는 문인이 많이 사는 의로운 동네라는 뜻인데, 이곳의 자연과 기상을 보자면 달리 그리 부른 것이 아니지 싶다. 온 계절의 기운을 만끽하며 느긋하게 유량을 즐기러 가보자.



소등섬



천관산 등백생태숲 ©장흥군청

수협 안내

장흥군수협
061-867-8104~5

정남진위판장
061-867-5004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

포항물회



모든 식재료를 주인장이 직접 고르고, 참기름은 직접 짜서 사용한다. 깨끗하게 관리된 수조를 두고, 장흥에서 직접 잡은 각종 해산물을 더욱 싱싱하게 제공한다. 내부도 깔끔하고 청결하다. 골목에 위치해 번잡하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다.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49
☎ 061-862-8965

갯마을횃집



특랑만 갯벌에서 잡은 바지락, 키조개, 피조개 등은 장흥의 대표적인 먹거리다. 장흥갯마을은 키조개 맛집으로 통한다. 매콤하면서도 새콤달콤한 양념과 쫄깃한 키조개가 하모니를 이루는 키조개회무침은 이 집의 대표 메뉴다. 특히 키조개는 산란기 직전인 5월에 가장 맛이 좋다.

☞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문옹곡로 141
☎ 061-862-1203

신가네



장흥에서 삼합을 주문하면 키조개, 한우, 표고버섯이 나온다. 신가네에서는 한 번 더 변주를 주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키조개에 주인장이 직접 잡은 낙지, 삼겹살로 새로운 맛의 조합을 경험할 수 있다. 삼합을 다 먹은 후 아쉬움은 볶음밥으로 충분히 달랠 수 있을 만큼 또 하나의 별미다.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16
☎ 061-863-6663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

5월 초 안양면 수문항에서는 청정해역의 키조개 축제와 제암산 철쭉제 행사가 동시에 개최된다. 키조개를 중심으로 먹거리와 살 거리, 놀거리가 하나로 어우러진 축제다.

☞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문1길 58
☎ 해양수산과 061-860-5992



정남진 장흥 물축제

장흥군의 깨끗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열리는 물축제다. 지상 최대 물싸움, 천연약초 힐링풀, 뗏목 타기, 우든보트 타기 등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전라남도 장흥군 탐진강 및 편백숲우드랜드 일원
☎ 관광과 061-860-5773

대덕신리 개막이체험

전래 고기잡이 방법인 개막이 체험을 장흥에서 할 수 있다. 특히 송어, 돔, 낙지, 게 등을 직접 손으로 잡을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신리옹암로 294
☎ 신리어촌체험마을 061-867-9878



청정 자연에 취하는 고흥

남도 끝자락, 특 튀어나온 육지가 탐스러운 유자처럼 바다 위에 열려 있는 고흥.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산천이 그러하듯, 고흥 이곳저곳에도 숨겨진 보석이 많다. 병풍처럼 8개 봉우리가 이어지는 팔영산 아래에 자리한 능가사. 건물이 전부 북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대웅전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 보물로 지정됐다. 팔영산의 품에 편안하게 안겨 있는 편백 치유의 숲.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나무 숲에 조성한 산림치유 공간으로, 회복의 시간을 선물해준다. 고흥에는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숲이 또 있다. 금탑사로 올라가는 길에 이어지는 비자나무 숲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1700년 이후에 심은 것으로 추정되며, 수령 300년이 넘는 상서로운 숲이다. 삼림욕을 즐기기에 좋다. 지친 일상에 쉼표를 찍는 고흥으로의 여행, 지금이 제철이다.



수협 안내

고흥군수협
 061-840-3114
건어물위판장
 061-840-3121
녹동위판장
 061-840-3162



고흥항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성실산장어숯불구이



국내산 1종 A급 활장어만 취급하는 장어 전문점으로 유명하다. 살이 잘 오른 신선도 높은 장어만 사용한다. 장어탕 국물은 고소하고, 장어는 아주 부드럽다. 장어가 싱싱하고 양도 푸짐하며, 식당 내부도 깔끔하다. 현지인도 인정하는 맛집이다.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177
☎ 061-843-9985

대흥식당



백반을 주문하면 호박나물, 무생채, 감자볶음, 고등어구이, 매생이, 꼬막 등 10가지가 넘는 일반 찬이 차려진다. 반찬 하나하나가 정갈하면서도 맛있다. 전라도 시골 밥상에 대한 로망이 있다면, 꼭 한 번 다녀가길 추천한다. 현지 주민들이 자주 찾는 맛집이다.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694
☎ 061-834-4477

분청마루



어머니 손맛이 느껴지는 매생이국과 낙지죽이 유명하다. 그 외에 갈치조림, 버섯불고기, 돼지주물럭 등 다른 메뉴들도 맛있다. 분청정식을 주문하면 낙지팔죽을 시작으로 연어, 광어, 병어회와 맛조개, 소라, 전복, 산낙지 등 다양하고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분청문화박물관길 77
☎ 061-834-7242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녹동 바다불꽃축제

직접 눈으로 감상하지 않고는 형용할 수 없는 환상의 불꽃쇼와 싱싱한 활어회 맛을 즐길 수 있는 축제다. 고흥의 미항, 녹동항 앞바다에서 매년 5월 개최된다.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구항 일원
☎ 관광과 061-830-5305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천혜의 자연경관과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숲을 보유한 국립공원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심신의 회복과 휴양, 생활습관 개선 등 체력과 면역력을 길러주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천사로 529-191
☎ 관리사무소 061-830-6984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분청도자 문화와 우리의 정신문화인 설화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건립되었다. 분청사기 만들기, 설화 페이퍼토이, 우드아트 등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분청문화박물관길 99
☎ 고흥분청문화박물관 061-830-5990



달, 별, 우주를 쏘아 올린 섬

'대한민국 우주 항공의 메카'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섬으로, 내나로도 와 외나로도 로 이뤄졌다. 사시사철 온화한 날씨, 깨끗하고 푸른 바다 그리고 기암괴석이 즐비해 황홀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이 더욱 특별한 것은, 우리나라에 단 한 곳밖에 없는 우주센터가 있기 때문. 한국 최초이자 세계 13번째인 나로우주센터에는 흥미진진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우주의 기본원리, 로켓, 인공위성, 우주탐사 등을 테마로 구성된 전시부터 우주과학을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시설이 준비돼 있다. 나로우주센터 가까이 있는 나로우주해수욕장과 영포해수욕장은 노송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명품 해변이다. 대한민국 우주 개척과 과학 발전의 역사가 숨 쉬는 곳, 고흥에서 우주를 만나보자.

여행 코스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외나로도편백숲 나로우주해수욕장 힐링파크 쑥섬

Travel Tip 바다 위 비밀정원이라 불리는 쑥섬은 나로도연안여행객센터미늘에서 배를 타고 5분이면 갈 수 있다. 계절마다 피고 지는 아름답고 다양한 꽃들은 무려 400여 종으로 장관을 이룬다.

영포해수욕장 고흥우주발사 전망대

수험 안내

나로도수험
061-840-8101~3

나로도위판장
061-840-8122



나로우주해수욕장



쑥섬
©고흥군청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다도해회관



고흥을 대표하는 식당 중 한 곳. 나로도 특산물인 삼치를 가장 맛있게 조리하며, 양도 푸짐하다. 삼치회는 방어처럼 기름지면서도 또 다른 식감과 맛이 있는데, 특히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삼치회에 거부감이 있다면, 김에 싸서 간장을 찍어 먹거나 목은지를 곁들여 먹으면 느끼함을 완벽하게 잡아준다.

☞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103-18
☎ 061-834-511

순천횃집



고흥의 맛을 대표하는 '고흥 9미'. 그중에서도 녹동 장어탕·구이와 서대 회무침·조림, 나로도 삼치회·구이는 유명하다. 나로도항에서 배를 타면 야생화 만발한 썩섬도 여행할 수 있고 항구 앞에 맛집도 있으니 일석이조. 고흥 김에 목은지 올리고, 도톰하고 담백한 삼치회 한 점 올리면 게임 끝이다.

☞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117
☎ 061-833-644

정다운식당



싱싱한 생선으로 꾸려진 정갈한 백반을 맛볼 수 있다. 정식을 주문하면 맛의 고장 전라도에 온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밥상이 나온다. 특별한 것 없는 반찬이지만 신선한 재료와 주인장의 손맛이 더해져 메인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밥 한 공기 '뚝딱'이다. 보리굴비와 서대구이도 촉촉하고 맛있다.

☞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개안길 35
☎ 061-833-6825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고흥우주항공축제

우주항공 수도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매년 4~5월 펼쳐지는 축제다. 어린이 우주인 선발대회, 우주항공 체험 등 신비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행사다.

☞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하반로 490
☎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061-830-8700



시호도 원시체험

나로도에서 2~3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시호도에서는 원시 체험을 할 수 있다. 원시인처럼 살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 전라남도 고흥군 통일면 덕흥리 구룡마을 앞 무인도
☎ 관광과 061-830-5305

동포 갯벌체험

갯벌에서 조개를 잡거나 독살 체험, 수산물 관찰하기 등 상시 갯벌 관련 체험이 가능하며 사위장, 캠핑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단체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 전라남도 고흥군 통일면 동포길 93
☎ 동포갯벌체험장 061-832-5111



조명에 담긴 감성의 도시

노래 한 곡으로 '낭만 도시'로 거듭난 여수. 낮에는 파도가 반짝이고, 밤에는 조명이 반짝이는 잠들지 않는 도시를 걷다 보면 절로 감성이 충만해진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기점으로 여행지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갖춰나갔다. 오동도, 금오도, 거문도, 낭도, 하화도 등 수려한 섬은 여행객을 불러모으는데 한몫 거들었다. 오동도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됐을 정도로 절경을 자랑하는 여수의 대표 관광명소다. 동백꽃이 피는 시기에는 온 섬이 선홍빛으로 물들어 '바다의 꽃섬'이 된다. 돌산 공원에서 바라보는 형형색색의 돌산대교는 여수항의 밤바다와 어우러져 이국적 정취가 가득 넘친다. 바다, 섬, 도시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들어와 여수 제일의 경치를 자랑한다. 매력적인 풍광에, 여수는 낭만을 찾는 사람들로 활기차다.



수험 안내

- | | |
|-------------------------------|-------------------------------------|
| 여수수험
061-640-3017~9 | 서남해수어류양식수험
061-642-1010 |
| 수산물직매장
061-640-3089 | 군해유망수험
061-655-1203 |
| 선어위판장
061-640-3030 | 전남정치망수험
061-666-4402~3 |
| | 제3·4구잠수기수험
061-640-2011~3 |



돌산 장군도
©여수시청



오동도
©여수시청



갯놀마차



15년 경력 요리사의 회를 다루는 솜씨가 남달라 회 맛 역시 일품이다. 기본 상차림이 주메뉴 못지않다. 싱싱하고 음식 솜씨가 맛으로 배어난다. 가격 대비 양과 질이 좋아 가성비 좋은 곳이기도 하다. 낙지, 전복, 삼겹살을 구워 먹는 여수삼합구이도 조합이 훌륭하며, 볶음밥 또한 일품이다.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서4길 30-6
061-691-6532

명품제강식당



한자리를 25년 이상 지키고 있는 현지인 맛집이다. 계장백반, 갈치조림정식, 조기매운탕정식을 주문하면 기본 상차림부터 푸짐하다. 여수에서 유명한 간장계장과 양념계장 맛을 부족하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여수의 제철 식재료를 만든, 날마다 새로운 반찬이 보지만 해도 든든하고 먹음직스럽다.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로 48
061-641-1404

수미네계장밥상



어떤 메뉴를 선택하든 푸짐하고 맛이 좋다. 갈치조림정식을 주문하면 비리지도 짜지도 않은 계장까지 나온다. 다양한 음식이 있어 여러 명이 가더라도 취향에 따라 주문할 수 있다. 기본 상차림만으로도 배를 채울 수 있을 만큼 풍성하다. 내부가 매우 청결하며 조리과정을 밖에서 지켜볼 수 있다.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66
061-654-0600



여자만 갯벌노을 체험행사

웅장한 갯벌과 아름다운 노을이 유명한 여자만 갯벌에서 개최되는 행사. 개매기, 맨손고기잡기, 빨배타기 등 즐거운 체험과 붉은 노을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해넘이길 일원
여자만갯벌노을체험행사 추진위원회 061-659-1091



금오도 비렁길 트레킹

해안 절벽을 따라 뿔감을 구하고 낚시를 하러 다녔던 금오도 비렁길, 이름만으로도 아찔하다. 비렁은 '벼랑'을 뜻하는 여수 사투리기 때문이다. 해안단구의 벼랑을 따라 조성된 코스를 트레킹해보자.

코스3. 아찔한 비렁다리
직포 - 갈바람통전망대 - 매봉전망대 - 비렁다리 - 학동 (3.5km/2시간 소요)
관광과 061-659-3877

돌산해양낚시공원

돌산해양낚시공원에서는 돌산대교를 보며 낚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바다체험을 하며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수상 펜션이 마련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1길 12-13
돌산해양낚시공원 061-641-2707



천혜의 항구, 천혜의 아름다움

여수시와 제주도 중간 지점에 위치한 거문도는 동도, 서도, 고도 3개의 섬이 바다 위에 병풍을 친 듯 자리하고 있다.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2시간가량 더 들어가야 하는 섬으로,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물이 투명해 낚시꾼들에게 먼저 입소문 탄 곳이다. 해안을 따라 절경을 이루는 절벽, 산책로 양쪽으로 길게 들어선 동백나무 숲길을 걷다 보면 풍광에 취해 발걸음이 느려진다. 남해안 최초로 불을 밝힌 거문도등대, 그리고 등대 절벽 끝에는 바다 경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관백정이 있다. 날이 좋으면 제주도 한라산까지 보인다. 인어해양공원을 지나 녹산등대에서 마주하는 낙조도 거문도에서 놓칠 수 없는 비경이다. 이곳에서 신이 내린 천혜의 비경을 즐기며 잊지 못할 인생 추억을 켜켜이 쌓아보길 바란다.

여행 코스

영국군 수병 묘지 녹산등대 인어해양공원

Travel Tip 거문도는 은갈치와 해풍숙이 특산품이다. 특히 거문도 해풍숙은 해풍과 해무를 맞고 자란 건강한 친환경 약숙으로 유명하다. 그 지리적 특성을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 등록 농산물로 지정됐다.

뱃노래전수관 수월산 거문도등대

수협 안내

거문도수협
061-666-8020~3

거문도위판장
061-666-8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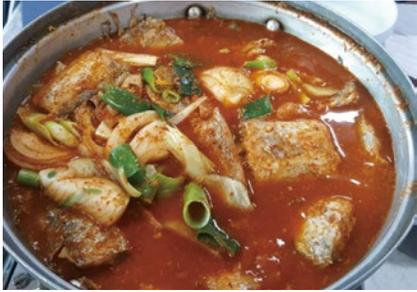
거문도
©여수시청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강동횃집



거문도 특산물인 갈치로 만든 조림과 구이가 대표 메뉴다. 굵은소금을 뿌려 그릴에 구운 갈치 구이는 입에 넣는 순간 녹아버린다. 제철에 가면 갈치회도 맛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광어와 돔, 농어 등 싱싱한 활어회를 즐길 수 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삼호교길 29
☎ 061-666-0034

번지횃집



거문도 전통 갈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거문도 앞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갈치에 감자와 각종 양념이 잘 어우러져 환상의 맛을 낸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한가쿠(영경귀) 갈치국도 꼭 도전해보길. 구수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또다시 거문도를 찾고 싶게 만든다.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44
☎ 061-666-8133

삼호교횃집



고도에서 거문도 서도로 나가는 삼호교 앞에 있는 활어회 맛집이다. 인근 해역에서 잡은 능성어, 도미, 우럭 등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다. 거문도에 있는 어느 식당처럼 갈치조림도 주문할 수 있는데 칼칼한 양념과 부드러운 갈치 살이 어우러져 엄지손가락이 절로 올라간다.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삼호교길 35
☎ 061-666-1774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거문도·백도 은빛바다 축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거문도·백도 일원에서 매년 8월에 개최되는 문화축제다. 갈치낚시, 전통 때배 체험, 저인망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거문도, 백도 일대
☎ 문화예술과 061-659-4743



전통 때배체험

거문도 유림해수욕장에 가면 누구나 전통 때배를 타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선상낚시, 노젓기 등 향토 체험으로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등대길 56
☎ 삼산면사무소 061-659-1257

참전복개도 어촌체험

화정면 개도리에서 여름철 관광도 즐기고 어촌 체험도 할 수 있다. 10명부터 50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조개 캐기, 전복 따기와 같이 바다의 참맛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화산2길 4
☎ 참전복개도마을 061-659-5709



사계절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고장

이름부터 봄 냄새가 나는 광양(光陽)은 온기 가득한 고장이다. 여느 곳보다 봄을 먼저 만나는 햇살 가득 머금은 광양은 숨은 명소가 많다. 그중 구봉산에 조성된 전망대에 오르면 시원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순천, 여수, 하동, 남해까지 광양만의 장엄한 파노라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굽이치는 섬진강 물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 섬진강 맛집 군락지인 망덕포구가 나온다. 이곳에서 꼭 맛봐야 할 벚꽃은 벚꽃이 필 때 가장 알이 굵고 맛있는데, 양식도 되지 않아 더 귀하고 인기가 많다. 낮뿐만 아니라 밤도 빛나는 여행을 즐기려면 느랭이골 자연휴양림을 추천한다. 낮에는 생태 정원에서 한적하게 휴식하며, 밤에는 수많은 별과 함께 형형색색 빛나는 LED 조형물을 보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여행 코스

백운저수지



광양와인동굴



구봉산 전망대



광양항 해양공원



Travel Tip 패션이 된 기차 터널을 활용한 광양와인동굴은 세계 각국의 와인을 맛보며 와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와인 족욕, 매실 와인 만들기 등의 체험도 할 수 있다.

망덕포구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수험 안내

전남동부수험
061-682-7178



망덕포구
©광양시청



배알도
©광양시청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나루터횃집



30년이 넘는 전통 있는 식당으로 광양의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다. 광양의 벚굴을 맛볼 수 있다. 돔, 농어, 광어, 우럭 등 여러 가지 회를 싱싱하게 즐길 수 있다. 봄철에는 향긋한 쑥을 넣어 요리한 도다리숙국과 도다리회를 먹어보길 추천한다.

☞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143
☎ 061-772-2217

청룡식당



40년 전통의 재첩 전문 식당이다. 재첩국과 재첩회무침 단 두 가지 메뉴로 승부를 본다. 당일 공수한 신선한 재첩으로 끓인 재첩국과 직접 만든 과일식초, 고추장으로 만든 재첩회무침의 맛은 가히 일품이다. 음식을 담은 소반을 통째로 내어주는 것도 왠지 시골집에 온 것 같아 정겹다.

☞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섬진강매화로 160-1
☎ 061-772-2400

세림식당



배에서 잡자마자 급랭시킨 선도 좋은 오징어를 사용해 오징어볶음을 만든다. 두툼하고 쫄깃한 오징어에 채소를 듬뿍 넣어 맛과 건강 모두 잡았다.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잡채와 호박전의 맛도 훌륭하다. 직접 담근 갯김치로 만드는 돌산갯김치찜도 이 집의 대표 메뉴다.

☞ 전라남도 광양시 발섬4길 18
☎ 0507-1362-0795

Editor's Ch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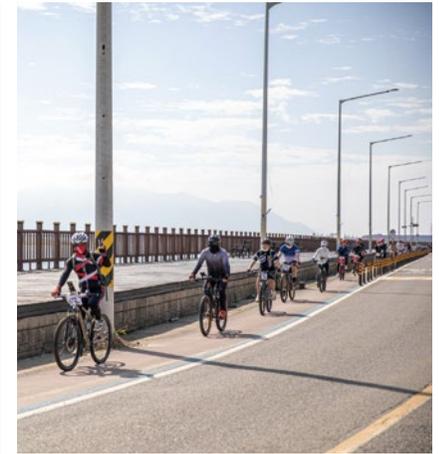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광양항 해양공원 야경 감상

영화 <명량>의 촬영지이자, 이순신대교 전체를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해양공원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이순신대교의 야경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94
☎ 광양항 해양공원 061-797-2114



섬진강 자전거 투어

태인동 명당지구 수변공원에서 다압면 하천리 남도대교까지 총 37.7km 구간으로 아름다운 섬진강 풍경과 함께 시원한 강바람을 느끼며 라이딩할 수 있다.

☞ 전라남도 광양시 명당길 60
☎ 배알도 유인 인증센터 061-791-9023

광양전어축제

특산물인 '광양전어요리'와 전통민요인 '광양 전어잡이노래'를 계승·발전시키는 축제로 8~9월 열린다. 전어 잡기, 재첩 줍기,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265
☎ 관광안내소 061-797-3333

